

# 비총칭적 중간동사와 능격동사

성 태 수 \*

## 차 례

1. 머릿말
2. 중간문 형성 제약들
3. 비총칭적 중간문의 특징
4. 중간문과 능격구문
5. 결론

## 1. 머릿말

영어의 동사는 목적어 유무에 따라 자동사(intransitive)와 타동사(transitive)로 분류된다.

(1) Mary *runs*.

(2) Mary *breaks* the window.

(1)에서 자동사 *run*은 동사구 내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2)에서 동사 *break*는 목적어를 갖는다. 그러나 아래 (3)과 (4)에 있는 동사들은 단순히 목적어의 유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동사들이다(Keyser & Roeper 1984).

(3) a. Mary broke *the vase*.

b. *The vase* broke.

---

\*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교수

주소: (330-707) 충남 천안 성환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전화: 041-580-2160, 이메일: yesitis@hanmail.net

- (4) a. They bribed *the bureaucrats*.  
 b. *Bureaucrats* bribe easily.

(3b)와 (4b)의 예문들은 (1)에 열거한 예문들처럼 주어 명사구 하나만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자동사 문형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어 자리에 명사구의 의미역이 (1)에서는 동사의 행위자인 반면, (3b)와 (4b)에서는 동사의 대상역이기 때문에 (1)과는 구별된다. (3b)와 (4b)의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이나 주어 자리에서 행위성(agentivity)의 정도가 다르다. (4b)에서 *bureaucrats*는 전혀 행위성을 보이지 않으나, (3b)에서 *the vase*는 행위성을 보인다.<sup>1)</sup> Burzio(1981)에 따르면, (3b)에 나타난 동사를 능격동사(ergative verb), (4b)에 나타난 동사를 중간동사(middle verb)라 한다.

그러나 Iwata(1999)는 아래 문장 (5), (6)이 중간문의 주요한 특징인 총칭성(genericity)과 가능성의 양상(modality)을 결핍하고 있으나 중간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5), (6)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4b)와 같은 총칭적 중간문과 공통점을 지닌다. 즉, 두 구문은 외재적 대상역 주어와 함축된 행위자 주어를 가지며, 부사나 부사에 상응하는 표현을 포함한다.

- (5) This car is handling smoothly.  
 (6) This car handled smoothly.

또한 (5), (6)을 능격구문과 비교할 때, 두 구문 사이에 외재적 대상역 주어와 비총칭적 의미해석을 가지고, 시제와 진행상을 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반면, 함축된 행위자 주어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중간문에 대한 Fellbaum(1986), Keyser and Roeper(1984), Fagan(1982), Chung(1995)의 주장을 통해, 중간문의 정의, 중간문의 외재적 대상역 주어(external subject), 함축된 행위자 주어(implicit agent subject),

1) (3b)와 (4b)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 문법의 차이가 발생한다.

- (i) X caused the vase to break.  
 (ii) \*X caused the bureaucrats to bribe easily.

중간동사의 의미적 속성, 또 양태부사의 사용 유무에 이르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각각의 이론에서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Oosten(1986)과 Iwata(1999)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충칭적 중간문을 제안할 것이며, 이와 같은 차이가 각 구문이 포함하고 있는 동사의 상적 특성에서 기인함을 주장할 것이다.

2장은 중간문 형성조건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여러 분석 방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우선 Hale & Keyser (1987), Fellbaum & Zribi-Hertz (1987)의 피영향성 제약조건, Vendler(1967)의 상 제약조건, Oosten(1984), Fellbaum(1986)의 제일 책임성 제약조건, Chung(1995)의 사역성 조건 등을 살펴보고, 각 조건의 한계성을 논의한다. 3장은 중간문의 비충칭적 해석, 중간동사의 상 자질, 중간문의 주어, 부사적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4장은 비충칭적 중간문과 능격구문의 특징을 비교하고,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 2. 중간문 형성 제약들

초기 변형문법의 대부분 연구는 중간문의 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타동사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이 장은 중간문 형성과 관계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제약들 즉 ‘주어’, ‘동사’, ‘양태부사’의 고찰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제약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약들 간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피영향성 제약(Affectedness Constraints)

피영향성 제약에 따르면, 중간문은 타동사의 내부논항이 동사에 의해 영향 받을(affected) 경우 형성될 수 있다.<sup>2)</sup> Fellbaum & Zribi-Hertz(1989)도 논

2) Change of state is some property of the theme held before the time with respect to which the proposition containing the predicate is evaluated and fails to hold after that time, or vice versa (Roberts 1985:394).

항의 내재적 속성이 변화된 것을 영향받은 논항으로 정의한다.<sup>3)</sup> 이러한 상태 및 속성의 변화에 기초한 피영향성 제약은 다음에 제시된 중간문의 적격성 여부를 설명해 준다.

- (7) The bottle breaks easily.  
 (8) \*The Eiffel Tower sees from my window.  
 (9) a. \*This bridge builds easily.  
       b. \*This poem writes easily.

(7)의 *bottle*이라는 대상역을 지닌 명사구는 *breaking easily*라는 동사의 행위에 의해 상태변화를 겪으므로, 중간문 (7)은 피영향성 조건을 만족시킨다. 반면, (8)의 *the Eiffel Tower*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여질 뿐 그 자체의 어떤 상태나 속성이 변하지 않으므로 예문(8)은 피영향성 제약을 위반한다. (9a,b)의 *bridge*와 *poem*은 각각 동사 *build*와 *write*에 의해 창조되어진다. 이 논항들은 자신들이 겪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지니던 어떤 본래의 상태나 내재적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조동사를 포함하는 예문(9a-b)가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음이 증명된다. 피영향성 제약은 동일한 동사를 지닌 (10a)와 (10b)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

- (10) a. This piano plays easily.  
       b. \*This sonata plays easily.

(10a)의 대상인 피아노가 연주하는 행위에 영향을 받아 상태변화를 겪는 논항이기 때문에 (10b)와 다르게 중간문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아래 Fellbaum & Zribi-Hertz의 예 (11)를 살펴보자.

3) An argument A of a verb or predicate is AFFECTED by the action or process P referred to by the verb if the referent of A exists prior to P and if its inherent properties are modified by P (Fellbaum & Zribi-Hertz 1989:28).

4) 그러나 실제로 연주하는 행위가 대상인 피아노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Mary photographs well.

(11)에 대하여 Fellbaum & Zribi-Hertz는 사진을 찍는 것은 찍히는 사람을 어떤 하나의 표상(image)으로 바꿈으로써, 찍히는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photograph*의 수동자는 영향받은 논항이고, 이 때문에 (11)이 중간문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도 사진을 찍는 것이 찍히는 사람의 상태나 속성을 변화시킨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11)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한 임의적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상태 및 속성의 변화에 기초한 이들 피영향성 제약은 다음의 문장들이 중간문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12) This book reads easily.

(13) Greek translates easily.

(12-13)의 *this book*과 *Greek*은 각각 읽히는 것과 번역되는 것에 의해, 그들의 상태나 속성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영향성 제약에 따르면, (12-13)의 *read*와 *translate*는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 이들은 중간문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피영향성 제약은 또한 아래 (14-15)에서와 같이 중간문의 주어가 동사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역(theme)이 아니고 오히려 도구역(instrument) 또는 장소역(locative)일 경우의 적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14) The knife cuts well.

(15) The aluminum pan bakes higher and browns evenly.

실제로 행위자역을 가진 논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들이 실제로 중간문의 주어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 2.2 동사의 상자질 제약(Aspectual Constraints)

Vendler(1967)는 동사를 활동(activity), 완수(accomplishment), 성취(achievement), 상태(state) 네 종류로 분류한다.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기술하는 동사로 진행형을 취할 수 있고, 성취동사와 상태동사는 진행형을 취할 수 없다.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완수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그것이 수행되는데 걸리는 정해진 시간이 존재하며, 활동동사는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정되지 않는다. 성취 동사는 나타내는 동작이 한 순간에 발생해서 종결되는데 비해, 상태동사는 나타내는 동작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두 동사는 구분된다. Fagan(1992)은 중간문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사의 진행형 수용 여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Vendler(1967)에 따르면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는 진행형을 취할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은 중간문 형성이 가능함을 상 접근법(aspect approach)에 의하여 설명한다.<sup>5)</sup>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6) The car drives easily. (활동동사)
- (17) This book reads easily. (완수동사)
- (18) \*This poem understands easily. (성취동사)
- (19) \*The answer knows easily. (상태 동사)

Fagan은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만이 중간문 형성에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Fagan의 상 제약을 통해 다음 예문들의 중간문 형성 가능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다음에서 보듯이 (20)의 동사는 진행형이 가능한데 반해, (21)의 동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5) Roberts(1986)의 행위성(agentivity) 테스트에 의하면, 활동 동사와 완수 동사는 그들의 외부 논항 주어를 행위자로 지니고 성취 동사와 상태 동사는 행위자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Fagan의 상 제약(aspect constraint)은 중간문의 특성인 내포될 행위자를 강조하는 행위성 제약(agentivity constraint)과 일맥상통한다.

(20) She is driving the car.

(21) \*She is understanding this poem.

이 때문에 (20)의 동사는 중간문 형성이 허용되나, (21)의 동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 상자질 제약은 (22)과 (23)의 비적격성을 판정하는데 있어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22) a. \*Mary invites easily.

b. They are inviting Mary.

(23) a. \*That issue discusses easily.

b. They are discussing that issue.

따라서 Fagan의 상 제약에 따르면, 이들은 중간문이 허용되어야 하나 이들은 실제로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상자질 제약만으로는 중간문 형성 가능성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자질 제약은 (24)에서의 수동자에 따른 차이, 그리고 (25)에서의 부사류에 따른 중간문 형성 가능성의 차이 등도 설명하지 못한다.

(24) a. \*This sonata plays easily.

b. This piano plays easily.

(25) a. \*The soup eats rapidly.

b. The soup eats like a meat.

(24-25)의 동사들은 실제로 진행형이 허용되므로 상 제약에 따라 이들은 모두 적절한 중간문을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진행형이 가능한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만이 중간문 형성을 허용한다는 Fagan의 상 제약 또한 중간문 구조를 설명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제일 책임성 제약(Primary Responsibility Constraints)

Van Oosten(1986)과 Fellbaum(1986)은 중간문 주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해 일차적 책임(responsibility)을 지닌다고 한다. 즉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이 기술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동자 주어만이 중간문의 주어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 (26) a. The lawn mower handles easily.  
 b. Sweatshirts wash in the machine.

Fellbaum(1986)은 (26a)에서 주어인 *the lawn mower*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26b)에서는 *Sweatshirts*가 기계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즉 (26a, b)가 중간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주어의 특성이 동사의 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Oosten의 책임성 제약에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책임성 제약은 (27)에서와 같이 수반된 부사류의 차이에 따른 중간문 허용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 (27) a. \*The ball hits easily.  
 b. The ball hits like a dream.

위에서 (27a)와 (27b)는 동사와 수동자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hitting'에 대해 수동자가 지니는 책임성 여부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Oosten의 책임성 제약은 (27a)와 (27b)가 중간문에 대한 동일한 허용성을 갖는다고 잘못 추측한다.

또한, Oosten은 이론상으로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해 수동자가 지니

6) 중간문에서 수동자 주어의 책임성에 대하여 van Oosten(1986: 460-461)은 수동자 주어가 어느 정도의 행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의사 행위자(quasi-agent)라 설명한다. 또한 Hale and Keyser(1986)는 구성적 행위자(constructional agent-role)라 칭하기도 한다.



는 책임성 여부를 언급하지만, 동일한 동사라도 그들의 수동자에 따라 그들이 지니는 책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포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책임성 제약은 (28)과 같은 수동자의 차이에 따른 중간문 형성 가능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 (28) a. This piano plays easily.  
 b. \*This sonata plays easily.

(28a)와 (28b)에서 동사와 부사는 같고, 단지 수동자만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play*라는 동사라도 그들이 지니는 수동자에 따라 책임성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성 제약은 중간문 형성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 2.4 사역성 제약(Causative Constraints)

Chung(1995)은 기본적으로 모든 중간 동사는 타동사로부터 형성되나 모든 타동사가 중간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타동사가 중간 구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역성(causative)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아래 (29)의 사역성 조건 하에서 타동사의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이 동사의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자(cause)의 특성을 지닐 때 비로소 중간 동사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 (29) 사역성 조건(Causative Condition)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자(cause)가 없으면 행위를 받는 사건(caused event)도 발생하지 않는다.<sup>7)</sup> (Chung 1995: 276)

위와 같은 사역성 조건에 기초하여 모든 중간문은 의미론적으로 사역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 사역성 조건에 따르면 (30)에서와 같이 타동사의 수동자역

7) Chung(1995)의 원인자 개념을 Van Oosten(1986)은 수동자 주어의 동사 행위에 대한 책임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역, 도구역, 심지어 장소역을 지니는 모든 명사구가 중간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 (30) a. The glasses break easily. (수동자역)  
 b. The books read easily. (대상역)  
 c. The marks hit easily. (목표역)  
 d. The piano plays easily. (도구역)  
 e. The dogs frighten easily. (경험자역)

(30)에서 각 주어가 가진 속성이 동사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간문의 사역성은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Chung (1995)에 따르면 상태 동사는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다. 중간문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간동사는 사건동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으로는 중간동사가 어떤 이유에서 표면구조에서 비사건적 특성 또는 상태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Chung은 (31)과 (32)에서 성취 동사인 *break*와 행위 동사인 *hit*가 중간문 형성에 있어 보여주는 문법성의 차이가 각 동사의 어휘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31) This bottle breaks easily.

(32) \*This wall hits easily.

중간문의 원인자는 주어 자체가 아닌 그 주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가정 하에, *the bottle*의 본질적인 속성이 *breaking easily*라는 사건을 야기하기 때문에 (31)는 정문이고, *the wall*은 그 본질적인 속성이 *hitting easily*와 같은 사건을 야기한다고 보기 힘들므로 (32)은 비문이다. Chung의 주장대로, (31-32)의 문법성 차이가 각 동사들의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된다면, 모든 성취동사는 중간문을 형성할 수 있고, 모든 행위동사는 중간문을 형

성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sup>8)</sup> 그의 사역성 제약조건은 동사의 상 자질에 따른 중간문 형성의 상 제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중간문 형성에 대한 네 가지의 제약 조건과 각각의 한계점을 살펴 보았다. 3장은 두 종류의 중간문을 주장하고 있는 Iwata(1999)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충칭적 중간문에 대하여 살펴본다.

### 3. 비충칭적 중간문의 특징

2장에서 제시된 피영향성 제약, 동사 상자질 제약, 제일 책임성 제약, 사역성 제약은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칭적 해석을 가진 전형적인 중간문을 가정하고 있으며, 충칭적 해석의 중간문들의 일반적인 특성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Oosten(1986)과 Iwata(1999)은 또 다른 종류의 중간문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비충칭적 해석의 중간문은 충칭적 해석의 중간문과 동일하게 함축된 주어와 능동의 형태에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지 다른 점은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취한다는 것, 또 함축된 주어가 비충칭적이고 중간문의 주어가 사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되는 비충칭적 중간문은 능격구문과 매우 유사하다. 능격구문 역시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가질 수 있고, 함축된 주어가 비충칭적이며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충칭적구문과 능격구문은 동일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1은 비충칭적 중간문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3.2는 충칭적 중간문, 비충칭적 중간문의 동사의 상자질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며, 3.3은 중간문 주어의 한정성(definiteness) 유무가 그 문장의 동사 상자질과 밀접한 관계

8) Chung(1995:270)의 목표역은 중간문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가정을 받아들여, (i)에서 hit의 의미를 '치다', '두드리다'가 아닌 '맞추다'로 볼 경우, (i)의 비문법성을 설명이 된다.

(i) \*This wall hits easily.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다르게 아래 (ii)에서 내부논항이 목표역을 가진 경우에도 중간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ii) The target hits easily.

를 이루고 있음을 알아보겠다.

### 3.1 Iwata(1999)

Iwata(1999:537)에 따르면, 함축된 행위자 주어는 중간문을 정의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거나 일부 중간문은 주요한 중간문의 특징인 총칭성(genericity)과 가능성의 양상(modality)을 결핍하고 있다. 그는 (30b,c)와 같이 총칭성과 가능성 양상을 결핍된 중간문은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취할 수 있으며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취할 수 있는 중간문은 함축된 행위자 주어(implicit agent subject)가 특정성(specificity)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33) This car handles smoothly.

(34) a. This car is handling smoothly.

b. This car handled smoothly.

(33)의 함축된 주어는 총칭적(generic)이고, (34)의 함축된 주어는 특정한 화자, 즉 동사에 의해 표출되는 사건의 비총칭적 행위자(non-generic agent)이다. 그러므로 비총칭적 행위자를 주어로 가지고 있는 (34a, b)는 화자 독립적인 사건을 포함하는 구문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

(35) \*This car was handling smoothly while I was sleeping in the backseat.

(36) \*This car handled smoothly while I was sleeping in the backseat.

(35-36)의 중간문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된 주어는 총칭적 주어가 아닌 화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인 I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화자인 I에 의해 자동차가 잘 작동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35), (36)'에 공히 'while I was driving along the crooked road'와 같이 해당 중간문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부가된다면 (35), (36)은 정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간문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표현할 때, 중간

문에 함축되어 있는 주어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wata(1999)는 중간문 예문들에 대해 Keyser and Reoper(1984)가 제시했던 문법성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Keyser and Reoper(1984)는 (37)에 제시된 예문들을 비문으로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Iwata(1999)는 중간문의 비총칭성을 수용한다면 (37)의 예문들은 정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7) a. ?\*Yesterday, the mayor bribed easily, according to the newspaper.  
 b. ??At yesterday's house party, the kitchen wall painted well.  
 c. ?Grandpa went out to kill a chicken for dinner, but the chicken he selected didn't kill easily.  
 d. ?If it hadn't been for the wet weather, my kitchen floor would have waxed easily.

(33), (34a, b)에서 보여 지듯이, 현재시제와 총칭적 해석을 가진 중간문은 진행상, 과거시제, 또 비총칭적 해석을 가진 중간문과 분명 다르게 해석된다. 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은 함축된 총칭적 행위자가 중간문 주어가 지닌 본질적 속성 때문에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은 주어가 지닌 본질적 속성과는 상관없이 함축된 특정 행위자에 의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Iwata(1999)는 중간문이 진행상과 과거시제를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중간문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장에 대한 적격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3.2 중간동사의 상 자질 제약

서정수(1991)는 [상태성]과 [지속성]이라는 기본적인 상 자질에 따라 동사들의 의미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류를 영어동사에 적용시킬 경우,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성취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상태동사는 [+상태성, +지속성]의 상 자질을 지닌다. 이 분류 내용에

따르면, 중간동사인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는 공통적으로 [-상태성, +지속성]의 상 자질을 갖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창조동사는 완수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간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38) a. \*This bridge builds easily.

b. \*This poem writes easily.

(38a, b)의 *build*와 *write*가 중간문 형성 이전에 타동사로 사용될 때, 그 동작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build*와 *write*는 완수동사이다. *building*이나 *writing*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통해 어떤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 그와 동일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창조동사는 중간동사로 사용될 수 없다. 여기서 중간동사는 양태부사와 함께 주어의 지속적인 상태나 속성, 즉 [+상태성, +지속성]의 상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39-40)의 *write*는 (38)의 *write*와 다르게 중간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39) This pen writes well.

(40) Love letters write easily. (Chun 2003:145)

(39-40)의 *write*가 (38b)의 *write*와 다른 점은 일정한 시간 동안 행위가 반복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8b)와 (39-40)의 문법성 차이는 *write*의 동사분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간동사의 상자질은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은 (34a, b), (37)과 같은 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비총칭적 중간문의 동사는 진행상과 과거시제를 취할 수 있으며, [-상태성]과 [-반복성] 상 자질을 가지므로 중간동사가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 상 자질을 지녀야 한다는 위의 가정은 문제에 직면한다. 총칭적 해석의 중간동사는 [+상태성] 자질을 지니고 있으나, 비총칭적 해석의 (34a,b)와 (37)의 중간동사는 [-상태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간동사가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의 상자질을 가진다는 가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상태성, +지속성] 자질을 가진 타동사가 중간동사로 어휘적 변형을 겪는 과정에서 행위동사와 성취동사는 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에서는 [+지속성, +반복성]을, 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은 [+지속성, -반복성] 상자질을 가진다. 이명옥(2001)은 중간문이 적어도 동사와 그 내부 논항을 포함하는 술부에서 한정성을 획득하고 이를 근거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규칙적 반복을 이루는 순환성(recursiveness)요소를 갖게 될 때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9)</sup> 즉 [-상태성, +지속성] 상자질을 가진 행위동사와 완수동사가 어휘생성과정을 거쳐 총칭적 해석의 중간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 상자질을 가지며, 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 상자질을 가진다.

Vendler(1967)는 동사가 지니고 있는 상의 전이(shifts)가 가능함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think, know, understand, see, hear* 등의 동사는 원래 어떤 범주의 상에 속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자.

- (41) a. Oh, I am quite tall, I saw him all the time he was in the courtroom. I was watching him.  
 b. At that moment I saw him.

(41a)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인 *all the time* 때문에 *see*는 상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41b)는 정해진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쓰임으로써 *see*가 성취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상 자질의 전이는 그 동사가 사용되는 문맥 안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9) (i) a. \*The suicide website terminates easily.  
 b. That natural disaster prevents easily.

이명옥(2002)은 (ia,b)가 비문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함하는 동사들이 사건이 더 이상 지속되는 않는 종결점(definite endpoint)를 가지므로 한정성(definiteness)의 의미를 가지나 행위의 규칙적 반복에 근거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동자의 속성을 기술하지 못하고 일회성의 사건을 전달하는 구조는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다.

## 3.3 중간문 주어

2장에서 제시된 제약조건들은 중간문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지니는 내재적 속성이나 일반적인 상태를 기술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Fellbaum & Zribi-Hertz(1989)의 예문이다.

(42) The clothes wash with no trouble because

(43) a. they're machine-washable.

b. \*I've lots of time.

(42) 중간문 뒤에 (43a)에서처럼 주어 *the clothes*의 속성을 언급하는 이유절이 오는 것은 적절하나, (43b)에서처럼 행위자 *I*의 상태를 언급하는 이유절이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차이는 중간문 주어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간문 사건의 총칭성과 비총칭성은 중간문 주어의 비한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차이는 Iwata(1999)가 제시한 아래 문장을 통해 쉽게 파악된다.

(44)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45) These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44)의 비한정성 주어는 해당 문장의 사건의 총칭적 해석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반면, (45)는 비총칭 해석의 중간문이다. 이 경우는 주어의 속성이 원인자로 작용해 사건에 대한 일치적인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우연하거나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원인자로 작용해 함축되어 있는 특정한 행위자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어의 속성이 사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중간문에 대한 정의가 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sup>10)</sup>

10) 비총칭적 중간문 (45)과 총칭적 중간문 (4b)을 비교할 때 (45)의 한정사 (determiner) *these*가 총칭적/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



아래 (38), (39), (40) 역시 상 제약과 관련되어 3.2에서 논의되었다. 각 예문은 활동동사 *build*와 *write*를 포함하고 있다.

- (38) a. \*This bridge builds easily.  
 b. \*This poem writes easily.  
 (39) This pen writes well.  
 (40) Love letters write easily. (Chun 2003:145)

(38a, b)는 한정적 주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주어의 일반적 속성에서 기인한 총칭적인 사건이 아닌 주어 개별적인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39-40)는 비한정적인 주어인 *this pen*, *love letters*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총칭적 해석이 가능하다. 동일한 동사 *write*가 (38b)에서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의 상자질을 가지나, (39-40)에서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의 상자질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간문 주어의 한정성 유무는 중간문의 총칭적/비총칭적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본인이 문법성 판단을 의뢰했던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들은 아래 예문들이 문맥상에서 용인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

- (38a') ?This bridge is building easily.  
 (38b') ?The poem is writing easily.

위에서도 (38a,b)가 비문인 이유는 사용된 동사의 상자질 때문이며 이들 동사들이 다른 문맥에서 상자질 전이 현상을 겪을 경우는 적격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다. (45)의 *these*는 물론 비총칭적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정사가 있는 경우에도 총칭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9)에서 *this pen*은 어떤 특정한 *pen*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런 종류의'(this kind of)와 같은 총칭적 해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정사의 두 가지 해석은 (33)과 (34)의 대조에서도 발견된다. (33)의 *this*는 총칭적이거나 (34)의 *this*는 비총칭적이다. 그러므로 한정사의 유무는 총칭적/비총칭적 중간문을 분류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 3.4 부사적 효과

다음은 중간문이 양태부사를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중간문 조건 (43)는 중간문에서 동사와 양태부사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부사는 동사에 기능적인 의미를 추가해 결과자(causee)의 속성이나 상태 혹은 사건을 기술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즉 중간문에 양태부사가 없다면 결과자의 속성이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아래 중간문들은 부사가 없으므로 비적격문이 된다.

(46) a. \*That idea communicates.

b. \*That passage translates. (Iwata 1999:535)

(46)와 같이 부사 수식어가 중간문에 필수적이지만 (47-48)과 같이 부사가 없어도 의미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부사 수식어가 수반되지 않는 중간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부가적 제약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Iwata(1999)는 (47-51)의 부정(negation), 동사에 문장강세(sentential stress), 강조(do(emphatic do)와 같은 부사에 상응하는 효과(adverbial effects)들이 중간문 형성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47) This dress buttons.

(48) This umbrella folds up.

(49) a. \*The meat cuts.

b. This meat doesn't cut. (Fellbaum 1986:9)

(50) a. ??This car drives.

b. I thought we were out of gas, but the car DRIVES!

(Fellbaum 1986:9)

(51) These red sports models do sell, don't they?

결국, 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이든 비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이든 공통적으로 모든 중간문은 부사나 혹은 부사에 상응하는 부사적 표현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4. 중간문과 능력구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시제를 취하는 중간문은 총칭적 사건을 표현하며,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취하는 중간문은 한정적 혹은 비총칭적 사건을 표현한다. 영어 중간문에 대한 정의 (33)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 (52) a. 중간문의 원인자(cause)는 중간문 주어에 지닌 본질적 속성이나 우연한 사건이나 상황이다.  
 b. 중간문은 총칭적 혹은 비총칭적 함축된 행위자를 포함한다.  
 c. 중간동사는 [ $\alpha$ 상태성, +지속성,  $\alpha$ 반복성] 상자질을 가진다.  
 d. 중간문은 반드시 부사나 부사에 상응하는 표현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반복된 (24a, b)는 동일한 동사 *play*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주어에 따른 적격성의 차이를 보인다.

- (24) a. This piano plays easily.  
 b. \*This sonata plays easily.

(24a)와 (24b)의 *play*는 활동동사로 중간문 형성과정에서 [+지속성] 상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법성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4a)의 주어 *this piano*는 ‘이런 종류의 모든 피아노’와 같은 비한정적/총칭적인 주어로 해석되고, 동사 역시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의 상자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 (24b)의 주어 *this sonata*는 ‘이런 종류의 모든 소나타’가 아닌 ‘바로 이 소나타’를 의미한다. (24b)의 *play*는 [+지속성, -반복성] 상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칭적 해석의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다. *Sonata*를 연주하는 것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다르게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작품을 완성하는 창조적 행위에 해당된다. 즉 (24b)의 *play*는 창조동사이므로 중간문을 형성할 수 없다. 주어의 특정성을 고려하여 이 문장이 진행상을 취할 경우(*This sonata is playing easily*) 비충칭적 해석의 중간문이 생성된다.

아래 반복된 (31)과 (32)의 적격성 차이를 살펴보자.

(31) The bottle breaks easily.

(32) \*This wall hits easily.

(31)에서 깨지기 쉬운 병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병은 쉽게 깨뜨려진다. 즉, 깨지기 쉬운 병의 본질적 속성이 원인자가 된다. 반면, (32)는 원인자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즉 쉽게 때려지는 것이 *the wall*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2)에서 *the wall*의 쉽게 때려지는 속성과 관련하여 도대체 *the wall*이 어떤 상태나 속성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Massam(1992)은 대조 환경의 존재 및 중간문 형성 가능성은 주어진 담화 문맥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53) a. ??The car drives.

b. I thought we were out of gas, but the car drives.

(53a)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53b)에서처럼 특수한 문맥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담화 환경에 따라 대조 환경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는 달리지 않는 차가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어려운 것이나, 차에 가솔린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차가 달리지 못하는 상황을 쉽게 예측될 수 있다.

Massam(1992)의 주장을 따르면, (32)의 비적격성이 쉽게 예측된다. (32)이 그 자체로는 비문이나, 적절한 대조환경을 표현함으로써 그 특수한 환경을 부여한다면, 주어 *the wall*은 그 특수한 대조환경 하에서 자체의 본질적 속성을 지닐 수 있다. 물론 (32)는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비충칭적 중

간문으로 분류된다. (54)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주어질 경우 (32)은 정문이 될 수 있다.

(54) ?The wall is hitting easily. (Some walls should be destroyed for remodelling. In case they are on the first floor, remodelling is usually avoided because of safety. But the wall is on the top-floor).

(54)는 비총칭적 중간문으로 분류된다. (54)는 매우 한정적 사건에 해당하며, 주어인 *the wall*은 *remodelling*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자에 의하여 때러지는 것이므로 총칭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비총칭적 중간문의 가정은 (55)의 *sell*의 특이성도 잘 설명해 준다. *sell*은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진행상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 (55) a. This book sells well. (총칭적 중간문)  
 b. This book sold well. (비총칭적 중간문)  
 c. This book is selling well. (Iwata 1999) (비총칭적 중간문)

(55a)는 현재시제를 취하고 있으나, (55b, c)는 각각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취하고 있다. (55a)의 함축된 행위자 주어는 총칭적이지만, (55b, c)의 함축된 주어가 *seller*라는 특수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51a)는 총칭적 중간문이나, (55b, c)는 특정한 혹은 비총칭적 해석을 갖는 비총칭적 중간문으로 분류된다. (55b, c)의 경우에는 거래라는 명확한 상황이 주어지므로 (54)의 *hit*과 같이 복잡한 담화맥락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사건이 쉽게 예측된다.

요약하면 비총칭적 중간문의 동사가 진행상과 과거시제를 취하고, 중간문의 동사들은 어휘적 파생 이전에 [-상태성, +지속성]의 상자질을 가지고 있다가 파생 이후에 [+상태성, +지속성, α반복성]의 상자질을 갖게 된다. α가 +일 경우는 총칭적 해석을 가지며, α가 -일 경우는 비총칭적 해석을 가진다. 또한 전

자의 주어는 비한정적인 총칭적 의미를 지니나, 후자의 주어는 한정적이며 비총칭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중간문과 능격구문 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심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능격동사의 일부 특징이 비총칭적 중간동사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능격동사는 (56)에서와 같이 과거시제와 진행상을 취할 수 있다. 능격구문은 주어는 비총칭적이며, 표면적으로 한정적 주어를 가진다.

- (56) a. The stone is rolling down.  
b. Yesterday, a vase broke.

하지만 능격구문은 비총칭적 중간문과 다르게 첫째, 부사나 부사에 상응하는 표현의 존재여부가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구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능격구문 (57a)는 사건의 발생을 알려줄 뿐 사건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필요하므로 방법부사나 부사상당어구가 불필요하다. 총칭적 중간구문 (57b)는 대상역의 주어와 함축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가를 설명해 줌으로 부사적 표현이 필요하다. 비총칭적 중간구문 (57c) 역시 함축된 행위자 주어와 존재하고 그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나 그 사건 자체는 일시적이며 어떤 한정적인 상황에 국한된다.

- (57) a. The butter melted (quickly). (능격구문)  
b. The door opens \*Φ/easily. (총칭적 중간문)  
c. This meat doesn't cut. (Fellbaum 1986:9) (비총칭적 중간문)

능격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의 상자질을 갖는다. 이는 총칭적/비총칭적 중간동사와 능격동사가 상자질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중간문의 원인자는 중간문 주어와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에 해당한다. 반면 능격구문의 주어는 부분적으로 행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문과 다르게 함축된 행위자 주어 즉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능격구문 (58a)는 *all by itself* 표현이 첨가될 수 있으며 이는 외재적인 도움이 완전히 불필요함을

의미한다.<sup>11)</sup> 이는 총칭적/비총칭적 중간문 (58b,c)과 구분된다.

- (58) a. The boat sank all by itself. (능력구문)  
 b. \*This book reads easily all by itself. (총칭적 중간문)  
 c. \*This book is reading easlly all by itself. (비총칭적 중간문)

Keyser and Roeper(1984:405)에 따르면 (58a)와 같은 능력문은 ‘외부적인 도움이 전혀 없이’라는 의미의 *all by itself* 구문과 함께 쓸 수 있으며, 이것은 내포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간문 (58b,c)는 의미상 내포된 행위자의 존재가능성을 차단하는 *all by itself*와 같은 표현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 5. 결 론

중간문과 능력구문에서 동일한 동사가 시제(tense), 상(aspect), 법(mood)에 따라, 혹은 방법부사의 존재 유무에 따라 통사적 다양성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성은 동사가 사용되는 담화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중간문 주어는 총칭적 사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어휘 논항구조에서 행위자를 제외한 다른 의미역과 원인자역(cause)의 복합형태로 실현된다. 중간문은 함축된 행위자를 포함하며, 부사나 부사상당어구를 요구한다. 활동동사와 완수동사가 주로 중간동사로 파생되나, 동사 상 자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총칭적 중간문 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 상자질을 가며, 비총칭적 중간문 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 상자질을 가지며, [+지속성] 상자질을 공유한다. 또한 총칭적 중간문 주어는 비한정적이거나, 비총칭적 중간문 주어는 한정적이다. 이와 같은 중간문

11) Fellbaum(1986:6)이 지적하듯이, 의미구조가 아닌 담화맥락에서 능력문도 부사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i) a. The door closes easily; you just have to press down. (중간문)  
 b. The door closes easily; it only takes a gust. (능력문)

의 다양한 특징 중 비총칭적 중간문의 특징은 능격구문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능격구문 역시 한정적 주어를 가지고 과거시제, 진행상을 취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부사나 부사상당어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격동사는 [-상태성, -지속성, -반복성]의 상자질을 갖는다. 동일한 활동동사나 혹은 완수동사는 자신이 사용되는 담화맥락에 기초해 상자질의 변이를 보인다.



## 인 용 문 헌

- 서정수. 『국어문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1991.
- 이명옥. 「영어중간문의 순환성 조건」. 『언어』 26:4. 735-753. 2001.
- Chun, Bomee. “Middle Formation Revisited”.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1 (2003): 135-158.
- Chung, Taegoo. “A Semantic Condition on English Middles: A Causative Approach”.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4 (1995): 271-288.
- Fagan, Sarah. *The Syntax and Semantics of Middle Construction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Fellbaum, Christiane. *On the Middle Construction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86.
- Fellbaum, C. & A. Zribi-Hertz. *The Middle Construction in French and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89.
- Grimshaw, Jane.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1990.
- Hale, Kenneth and Samuel Keyser. *A View for the Middle,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10. Cambridge: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MIT. 1987.
- Jackendoff, Ray. *Semantic Structures* MIT Press. 1995.
- Keyser, Samuel and Thomas Roeper. “On the Middle and Erg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5 (1984): 381-416.
- Iwata, Seizi. “On the Status of an Implicit Arguments in Middles”. *Journals of Linguistics* 35 (1999): 527-553.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Massam, D. Null Objects and Non-thematic Subjects. *Journal of Linguistics* 28 (1992): 115-37.

- Roberts, Ian. *The Representation of Implicit and Dethematized Subjects*,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1987.
- Striok, Thomas. Middles an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3 (1992): 127-37.
- van Oosten, Jeanne. *The Nature of Subjects, Topics, and Agents: a Cognitive Explan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86.
- Vendler, Zeno. *Linguistic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Abstract

## A Difference between Non-generically Interpreted Middles and Ergatives

Tae-Soo Sung (Namseoul University)

There are a wide range of syntactic variations between middle verbs and ergative verbs, based on tense, aspect, mood, 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verbs. These variations are likely to arise from the discourse context in which each verb is involved.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generically interpreted middle constructions and non-generically interpreted middle constructions. The former contains the aspectual features [+state, +progressive, +repetitive], while the latter [-state, +progressive, -repetitive]. Both share [+progressive]. Also the subject of the former non-definite, while that of the latter definite. Among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we can find many similar points between non-generically interpreted middle constructions and ergative constructions. That means that both resemble each other in including definite subjects, taking past tense and progressive aspect, and selecting adverb and adverbial phrases optionally, But the difference takes place in a composition of aspectual features. Ergative verbs include [-state, -progressive, -repetitive] differently from non-generically interpreted middle verbs.

**Key words:** Middle construction, Generic, Activity, Accomplishment, Implicit argument

**중간문, 총칭적, 행위, 완수, 내재적 논항**

논문접수일: 2008. 4. 25

심사완료일: 2008. 5. 21

게재확정일: 2008. 5. 30